

2025년 추계학술발표대회 : 대학생부문

사이공간을 통한 관계 중심의 공동주거 설계연구

- (구)진주역 옆 공동주택 설계 -

A Study on the Design of Apartment Houses Based on Relationship through Interspace

- Design of Apartment House next to Jinju Station (formerly) -

○공 성 빈*

Kong, Sung-Bin

김 동 규**

Kim, Dong-Kyu

Abstract

The traditional domestic residential environment was a low-rise residential environment in which a yard and a road were harmonized. After the construction of Mapo Apartment, which was Korea's first apartment complex, apartments became the mainstream in the form of domestic housing, but parking and roads for vehicles are important for arrangement. Housing types such as apartments lack consideration of the interspace connecting residents. This study aims to derive an apartment housing design that enables various lives through research on interspace in an apartment. To this end, the interspace in an apartment was first considered through the analysis of changes in the domestic residential environment and overseas cases. Next, a step-by-step method of interspace such as intergenerational, vertical, in-complex, and outside of the complex was derived on the site adjacent to Jinju Station, which has now been turned into a complex cultural park. It is expected that the possibility of interspace in the apartment housing considered in this study will be reflected in the domestic apartment design.

키워드 : 사이공간, 공동주택, 공용공간, 공공성, 관계성

Keywords : In-Between Architecture, Apartment House, Common Space, Publicity, Relationship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국내의 전통적인 주거환경은 마당과 길이 어우러진 저층형 주거환경이었다. 국내 최초의 아파트 단지인 마포아파트 건설 이후 아파트는 국내 주거 형태의 주류로 자리 잡고 있다. 1층 보행 전용 녹지 공간과 커뮤니티 공간을 접목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주차장과 도로,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통해 세대로 들어가는 단순한 이동 동선으로 인해 아파트는 지속적으로 공동체성이 부족하다는 비판과 함께 주민들을 연결하는 사이공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상황이다. Lim(2005)은 주민 공유공간이 이웃 간의 사회적 관계 증진 및 지속가능한 주거단지 형성에 필수적 주요 항목임을 강조하였고, Choi(2010)는 공동주거의 공간들이 근대의 공·사적 개념만으로는 해석이 불가능한 복합적인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공동주거의 복합적인 공간의 의미 변화와 필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공동주거에서는 주민들을 연결하는 사이공간이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사이공간에 집중하여 다양한 삶이 가능한 공동주거 설계안 도출을 목표로 하였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대상지는 도심 공원과 도시 집중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경계에 있으며 주변이 공동주거로 변화되고 있는 지역이다. 연구 방법은 첫 번째, 대상지 분석 및 공동주거에서 사이공간의 개념에 대해 조사한다. 두 번째, 국내 주거환경의 특징을 분석하고 세 번째, 이를 바탕으로 해외사례를 통해 공동주거에서 사이공간의 다양한 구현 방식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사이공간을 통한 관계중심의 공동주택 설계안을 제시한다.

2. 대상지 분석 및 선행 연구 고찰

2.1 대상지 분석

대상지는 경남 진주시 천전동의 (구)진주역에 인접한 지역으로 (구)진주역은 과거 기차역이 복합문화공원으로 바뀐 도시재생 장소이다. 대상지 서측에 인접한 (구)진주역은 인근 주민들의 휴식 공간 및 다양한 문화 공간이 있으며, 동쪽 지역은 고속버스터미널과 병원, 경상국립대학교 칠암캠퍼스 등으로 고층 건물이 많이 있으며, 새로운 주상복합건물도 들어서고 있다. 대상지 주변은 현재 보차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행환경이 열악하다. 대상지 내에는 주택이 있으며, 전통 주거 형태인 저층 주거로 이루어져 인접한 고층, 고밀도의 주상복합 건물과 대비를 이루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대상지 서측에서 동측으로 대비되는 성격을 프로그램으로 연결하고자 하였다. 또한 여전히 남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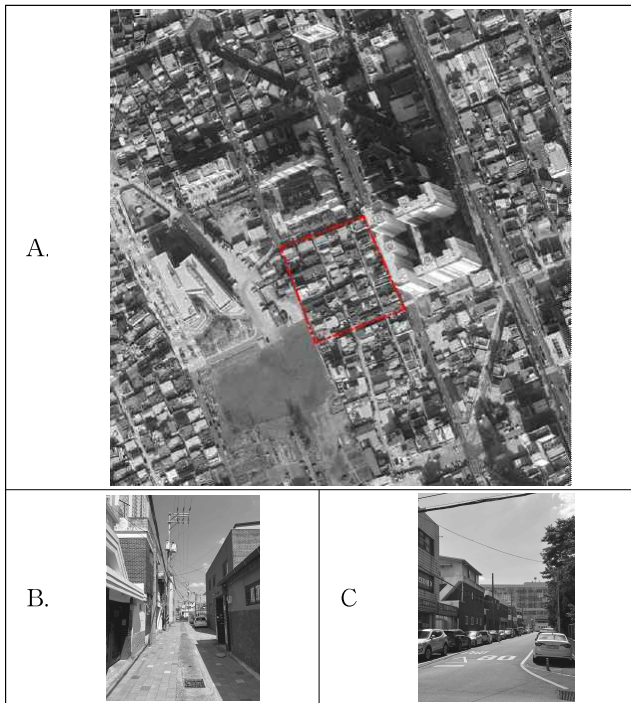
* 경상국립대학교 건축학과 학사과정

** 경상국립대학교 건축학과 부교수, 건축사(대한민국/독일)

(Corresponding author : School of Architectur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dgkim@gnu.ac.kr)

있는 대상지 내부 주택가의 전통 주거 형태를 반영한 이웃 소통 방식을 유지 및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표 1. 대상지 위치 및 현장 사진



2.2 사이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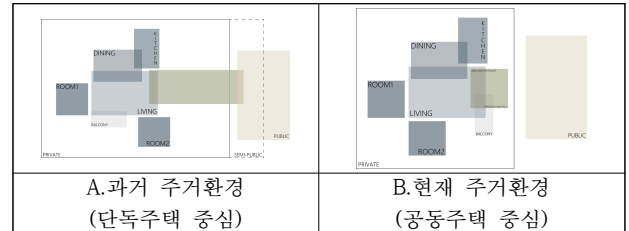
오늘날 공동주거의 공간은 오스카 뉴먼의 공·사적 공간 개념과 헤르만 헤르츠베르흐의 사이 공간 개념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최임주 외 2명, 2010). 따라서 공동주거의 사이 공간은 다양한 공·사적 공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완충 공간의 역할을 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조민정(2011)은 공동주거에서 매개적 성격의 영역을 공유공간으로 정의하며 공·사적 공간의 단계에 따라 공동주거의 공간을 분류하였다. 이는 공·사적 공간을 연결하는 사이 공간의 개념과 유사하며, 이를 통해 공유공간이 공동주거의 사이 공간 역할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각 세대의 현관, 복도, 계단, 주민 시설, 야외 공간 등을 활용하여 각 세대와 단지 내부, 크게는 단지 외부까지 연결하는 사이공간으로 활용가능하다.

2.3 국내 주거환경의 특징

우리나라 주거환경은 복촌의 한옥같이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발전하다가 점차 공동주택으로 변화되었고, 현재 공동주택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공적인 외부 환경에서부터 사적인 개인 공간까지 가는 과정을 변화시켰다. 표 2의 A와 같이 과거에는 공적 영역이지만 사적 영역을 사용되는 집 앞 골목에서 마당을 거쳐 주거 공간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공간적 체험 과정은 사적 영역이 주거 공간을 넘어 외부까지 영역을 확장하게 하고, 이는 주변 환경과 더 많은 연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든다. 반면 표 2의 B와 같은 현재의 공동주거의 주거환경은

외부와 연결을 허용하지 않는다. 과거의 집 앞 골목과 같은 공적이지만 사적 공간을 공유하는 세대가 같은 층의 바로 옆집 정도로 매우 한정적이다. 또한 과거의 마당처럼 담장으로 열린 공간 없이 벽체로 막힌 개인 공간으로 바로 들어간다. 팬데믹 이후 세대 내부에 마당과 유사한 개인 공간을 마련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는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서 이루어졌다는 한계가 있다.

표 2. 과거와 현재의 주거환경 변화



2.4 해외 사례 분석

표 3. 해외 공동주택 사례



BIG 그룹의 8 House는 단지와 외부를 경사로로 연결하여 길을 통해 주거 공간 진입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상층부의 주거 구역까지 연결된 길은 각 세대 앞의 개

인 마당과 연결되며 다양한 층위의 공공성을 형성한다. 또한 아파트처럼 동일한 수직 동선이 아닌, 다양한 수직 동선 연결을 통해 개성 있는 공간적 체험을 제공한다. MVRDV의 Parkrand는 2층에 위치한 공용 테라스에서 외부로 열린 채광과 조망을 제공한다. 세대 발코니의 돌출을 통해 입면의 다양성을 만들어 내고 동시에 발코니에 거주자가 나왔을 때 세대 간의 시각적 소통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다. 주거 공간은 몇 개의 타워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저층에서는 주민 휴게 공간으로, 상층부에선 각 타워를 주거 공간으로 연결하는 수평 매스로 형태가 연결된다. 앞서 언급한 두 해외사례의 사이 공간 구성 방식은 세대간, 세대와 단지, 단지와 외부의 관계에서 다양한 층위의 공공성을 갖도록 하며 주민들을 연결하였다.

3. 건축 설계

3.1 설계 개념

대상지는 서측에는 (구)진주역 복합문화공원과 문화 공간이 위치하며, 북측과 동측에는 기존 공동주택이 위치하여 밀도 높은 도시의 특성이 강한 장소의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서쪽의 공원과 동쪽 고층·고밀도의 주상복합 건물 도시 공간 사이에 위치한 대지에 대비되는 두 가지 요소를 조화롭게 연결하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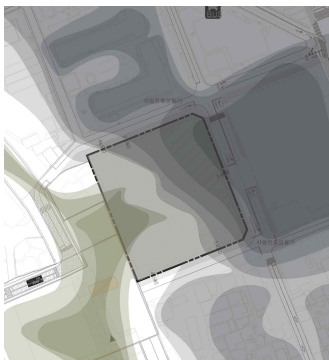


그림 1. 대상지 주변 영향관계



그림 2. 주거의 밀도 시각화

대한건축학회의 건축용어사전에 따르면 주거의 의미는 사람이 생활을 영위하는 장소 및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을 의미한다. 즉 주거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거주민의 삶도 포함하는 것이다. 공동주거에서는 공동체적 공간과 삶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공동주거는 주거라는 의미보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나누어진 세대 공간을 구성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 공동주거는 여러 세대가 머물기 때문에 다양한 밀도의 공공성을 가진 장소가 필요하다. 사이 공간은 많은 세대가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공간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이 공간을 통해 공동체 삶이 있는 다양한 밀도를 공동주거에 반영하였다.

3.2 세대 간 연결

첫 번째는 발코니와 데크를 활용한 연결 방식이다. 기존 공동주택과 같이 세대가 벽으로 외부와 차단되는 것이 아니라 주거 공간의 실을 해체하고, 그 사이 공간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구성하였다. 소극적으로 사용되는 기존 공동주택의 현관을 데크 형태로 생활공간 내부까지 연결하여 외부환경을 세대로 적극적으로 유입시켰다. 이는 그림3과 같이 과거 저층 주거의 길에서부터 사적 공간까지의 공간적 연결과 유사한 경험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이웃과 공유하는 발코니 공간은 세대 간 소통을 위한 사이 공간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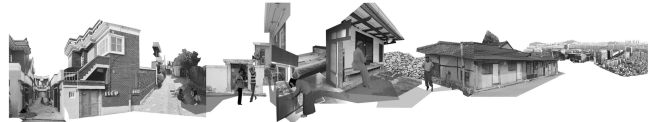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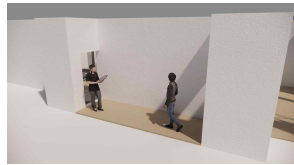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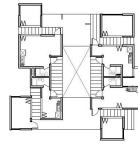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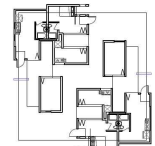
그림 3. 과거 주거환경의 공간적 경험 과정

표 4. 세대 간 연결 사이공간 구성

	
데크 공간	발코니 공간

두 번째는 클러스터 단위로 세대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각 클러스터는 몇 개의 세대가 모여 주택가의 이웃집같이 작은 커뮤니티를 구성하였다. 각 클러스터는 표 5와 같이 여러 종류의 세대 구성 방식을 가지며, 이들의 조합에 따라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공동주택의 같은 층에서 세대 간 연결에 더해 소통이 일어나는 다양한 사이 공간을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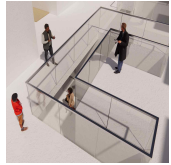
표 5. 클러스터 구성

	
중앙 커뮤니티형	사이 Green형
	
수직 커뮤니티형	중앙 Green형
	
복합형	

3.3 수직 연결

기존의 아파트는 각 층이 완벽하게 차단되고 엘리베이터와 계단만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차단되었던 관계를 회복하는 수직적인 사이 공간에 각 층의 녹지가 연결되는 방식, 메인 수직 코어 이외에 직접 동선을 연결하는 방식, Void를 이용하여 연결하는 방식을 유형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수직 연결 방식은 기존 아파트 형식의 공동주거에서 단절되었던 세대 간의 관계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표 6. 수직연결방식

		
녹지 연결	동선 연결	VOID

3.4 단지 외부 연결

최근 국내의 공동주거, 특히 아파트는 프리미엄화가 진행되면서 단지외부와 환경을 주변과 점점 더 차단하고 있다. 하지만 주거 공간은 단지뿐만 아니라 도시와 맺는 관계를 포함하기 때문에 도시와 단지의 연결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표 7. 배치도 및 공간별 이미지

		
1층 배치도		
		
수직 공공공간	주민 휴게시설	계단 휴게공간
		
작은 도서관	상가	Day-care센터
		
전체 조감도		

본 설계안에서는 주거층을 상부로 올리고 단지의 저층부는 언덕과 곡면으로 구성하여 언덕 위아래에 다양한 프로그램과 동선을 계획하였다. 주거층의 사이 공간과 저층부의 사이 공간들이 여러 레벨로 연결되며 단지외부를 다양한 모습으로 연결한다. 두 개의 언덕으로 지형이 들어 올려지고 내려가면서 지나가는 주민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프로그램에 따라 달라지고, 이와 함께 각 프로그램이 외부로 열리는 정도에 변화를 주도록 계획하였다.

4. 결론

사이 공간은 복합적으로 변화하는 공동 주거에서 공간의 관계를 더욱 유연하게 연결하게 할 수 있으며, 현대에 단절되어가는 공동체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 주거 공간에서 사이 공간을 활용한 공간적 변화는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줄 수 있다. 따라서 공동주거에서 관계 회복을 위한 사이 공간에 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해외사례 따라 분석 및 도출된 사이 공간으로 계획한 공동주택이라는 한계가 있다. 추후 진행되는 연구에서는 폭넓은 공동주거 사례를 대상으로 한 사이 공간 구성 방식 분석을 통해 공간을 도출 및 제안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임정은, 이연숙. 집합주택내 주민공유공간의 국내연구 경향 분석.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5(4), 2005
2. 조민정. 수직적 도시 공동주거 커뮤니티에 적용된 공유공간의 계획특성 연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11(5), 2011
3. 김용, 황한선, 오세규. 공동체주택 사례분석을 통한 프로그램 공간구성 연구.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20(3), 2018
4. 최우중, 장주영, 김주연. 소규모 가구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용공간 특화계획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18(5), 2023
5. 김인내, 김주연, 백승경. 공동주택 외부공간의 인터랙티브 디자인을 중심으로 한 접근성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7(1), 2012
6. 최임주, 신병윤, 오광석. 대단지공동주거의 공적·사적 공간관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12(4), 2010
7. BIG, 8 House, <https://big.dk/projects/8-house-2021>, 2025년 8월 28일 접속
8. MVRDV, Parkrand, <https://www.mvrdv.com/projects/146/parkrand>, 2025년 8월 28일 접속
9. Google Earth, <https://earth.google.com>, 2025년 8월 28일 접속